

제주 방언의 음운론

정 승 철*

〈차 례〉

- I. 머 리 말
- II. 제주 방언의 공시음운론
- III. 제주 방언의 통시음운론
- IV. 맺음말

I. 머 리 말

제주 방언은 국어의 대방언권으로서 제주도에서 쓰이는 방언을 가리킨다. 그런데 방언구획을 도(道) 단위로 한 데에서 비롯되어 제주 방언을 제주도 방언(濟州道 方言)이라 부르기도 하며 행정구획상 제주도에 속하면서도 방언구획상 서남 방언에 속하는 '추자도(楸子島)'의 방언을 배제한 데에서 제주도 방언(濟州島 方言)이라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요즈음 일반화된 방언권 명칭에 따라 '제주 방언'이라 칭하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주 방언은 방언권 내의 언어적 동질성이 매우 강하다. 전통적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북(山北) 방언과 산남(山南) 방언으로 하위 구획해 왔지만 이 두 방언이 보여주는 언어적 차이도, 다른 방언권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하나의 소방언권을 하위 구획한 방언 정도의 차이에 불과하다. 특히 음운론

*인하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의 영역으로 한정하면 산북 방언과 산남 방언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주 방언의 음운론적인 양상을 살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글에서는 하위 방언의 음운론적인 차이는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방언이란 비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방언의 연구는 언제나 국어로서의 공통점과 방언으로서의 차이점을 동시에 밝히는 것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제주 방언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제주 방언이 가지는 국어로서의 공통점보다는 주로, 다른 방언과의 차이점에 관심을 두고 제주 방언의 공시적·통시적 음운론을 기술해 준다.

II. 제주 방언의 공시음운론

2.1 음운 체계

2.1.1 제주 방언의 자음 체계에는 19개의 음소('ㅂ, ㅃ, ㅍ, ㅌ, ㅍ, ㅌ, ㅎ, ㅑ, ㅓ, ㅕ, ㅖ, ㅗ, ㅛ, ㅜ, ㅠ, ㅡ, ㅛ, ㅜ, ㅝ')가 포함되어 있으며 단모음 체계에는 9개의 음소('이, 예, 애, 으, 어, 아, 우, 오, 으')가 포함되어 있다(아래의 <표1>, <표2> 참조). 제주 방언의 음소 체계는, 모음 '으[e]'가 대체로 단어의 첫 음절에 한하여 실현된다는 점과 '위, 외'가 이중모음([wi], [we])으로 발음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중부 방언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모음에 관한 한, 제주 방언의 모든 방언 화자들이 동일한 체계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50대 중반 이하의 방언화자들은 '에'와 '애'를 구별하지 못하고 '에[E]'로 발음하며 40대 중반 이하의 방언화자들은 '에'와 '애'뿐 아니라 '오'와 '으'도 구별하지 못하여 '으'를 '오[o]'로 발음하기 때문이다.

제주방언의 음운론

<표 1> 제주 방언의 자음 체계

조음 방식		조음 위치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성문음	
		파열음	과찰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ㄷ		ㄱ		
		경음		ㅃ	ㄸ		ㄲ		
		격음		ㅍ	ㅌ		ㅋ		
	과찰음	평음					ㅈ		
		경음					ㅊ		
		격음					ㅉ		
	마찰음	평음			ㅅ				
		경음			ㅆ				
		격음							ㅎ
공명음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표 2> 제주 방언의 모음 체계

혀의 앞 뒤 위치		전설모음		후설모음			
입술 모양		비원순		비원순		원순	
혀의 높이							
고모음		이		으		우	
중모음		에		어		오	
저모음		애		아		으	

제주 방언에는 13개의 이중모음('예, 애, 여, 야, 유, 요, 으', '위, 웨, 왜, 워, 와, '의')이 있는바 '으덥(여덥), 으름(여름, 實)' 등에서처럼 '이[j]'와 '으'가 연속적으로 발음되는 이중모음 '으[jɐ]'가 단어의 첫 음절에 한하여 실현된다는 점에서 중부 방언과 차이를 보인다. '에'와 '애', '오'와 '으'를 구별하지 못

하는 세대에서 이중모음 '에'와 '애', '요'(또는 '여')와 '으'를 구별하지 못하는 물론이다. 이중모음 '의[ij]'는 일부 노년층 화자의 발화에서 발견되기는 하나 대부분의 화자들의 발화에서는 '이'로 발음되는 것이 보통이다.

2.1.2 제주 방언에서 음장(音長)이나 고저(또는 성조), 강세 등의 운소(韻素)는 단어의 뜻을 다르게 해 주는 변별적 기능을 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방언의 운소는, 발화를 리듬감 있게 해 주는 동시에 발화 단위의 경계를 알려 주는 형상적 기능이나 화자의 감정과 태도를 표현해 주는 표현적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제주 방언의 운소 중에 '고저'는 그 실현 양상이 독특한데 형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음조에 한정지어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 방언 음조의 실현 양상은 다른 방언과 달리, 하나의 음조군(音調群)을¹⁾ 이루는 음절의 수와 관련되어 있다. '들뤿(다래끼), 툇곡지(딸꾹질), 미꾸라지(鰍)'에서 보듯이 음조군의 음절수가 2음절이면 '1-2', 3음절이면 '1-2-1'의 음조가 부여되며 4음절 이상이면 '1-1-2-1n'의 음조가 부여된다(이때의 1은 '저조', 2는 '고조'). 물론 발화할 때 실현되는 음장이나 강세에 의해 음조가 달라지기도 한다는 점에서는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이다.

2.2 음운 변동

2.2.1 제주 방언은 하나의 음조군 안에서, 선행하는 요소가 종성을 가진 폐음절어이고 후행하는 요소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일 때 선행어의 종성을 후행 단어의 첫 음절 초성 자리에 복사하여 발음하는 복사 현상을 보여준다.

한국음식[한국음식](韓國飲食), 만아덜[만따덜](만아들), 지집아이[지집^ㅁ아이](계집아이), 비단웃[비단^ㄴ웃](비단웃), 감웃[감^ㅁ웃](감물들인 웃), 칠월[칠^ㄴ월](七月)

1) 음조는 발화 차원에서 일정한 단위에 부여되는데 음조가 부여되는 발화의 단위를 음조군이라 한다.

제주방언의 음운론

위의 예에서 앞말 '한국, 만, 지집, 비단, 감, 칠'의 마지막 자음('ㄱ, ㄷ, ㅂ, ㄴ, ㅁ, ㄹ')이 뒷말 '음식, 아덜, 아이, 옷, 월'의 초성 자리에 복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2.2 'ㄴ, ㅁ,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자음 어미)와 결합될 때 뒤에 오는 어미의 두음(頭音)을 경음화하여 발음하지 않는다.

신고(신-+-고, 履), 곰지(곰-+-지, 沐), 숯계[슴계](숯-+-계, 烹)

물론 젊은층이나 일부 노년층 방언화자들은 이를 경음화하여 '신고, 곰찌, 슷계'로 발음하기도 한다.²⁾

2.2.3 자음군(子音群) 'ㄹ, ㄹ'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될 때 자음군 중에 앞자음('ㄹ')을 탈락시켜 발음한다.

훽고[훽꼬](훽-+-고, 厚), 훽지[훽찌](훽-+-지)
븨고[븨꼬](븨-+-고, 踏), 븨지[븨찌](븨-+-지)

2.2.4 '스, 스, 츠'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 '으'로 시작하는 어미('으'계 어미)와 결합될 때에는 어미의 두음 '으'를 '이'로 바꾸어 발음한다.

دت으냐[드시냐](دت-+-으냐, 따뜻하냐), 꽃으난[꼬지난](꽃-+-으난, 꽃으니까),
죏으민[조치민](죏-+-으민, 좃으면)

물론 대부분의 젊은층 방언화자들은 '으'를 '이'로 바꾸지 않고 발음하는 것이 보통이다.³⁾

2) 이들 용언 어간이 자음 어미와 결합될 때 경음화를 보이지 않는 세대에서도 상대 존대의 선어말어미는 '죏쑤광[점쑤광](죏습니까)'에서처럼 항상 '-쑤-'로만 나타나므로 이 선어말어미의 기저형은 '-쑤-'라고 할 수 있다.

3) '막암스저[마감찌](막-+-암스-+-저, 막는다), 막암시냐(막-+-암시-+-으냐, 막느냐)'와 '막앗저(막았다), 막아시냐(막았느냐)'에서 보듯이 진행의 선어말어미 '-암스/엄스

Ⅲ. 제주 방언의 통시음운론

3.1 음운 체계

이전 시기 제주 방언의 자음 체계에는,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유성 마찰음 계열의 자음 '브'와 '드'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음 체계에서 사라져 현대 제주 방언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한편 제주 방언의 단모음 체계는 7모음 체계('이, 으, 어, 아, 우, 오, 으')에서 '에'와 '애'의 단모음화로 9모음 체계('이, 에, 애, 으, 어, 아, 우, 오, 으')로 변화하였다.

3.2 음운 변화

3.2.1 제주 방언에서 재구(再構)가 가능한 유성 마찰음 '브 [β]'는 '새워(사비: 훈민정음 해례:25, 새우), 대왓(대밭: 용비어천가 5:26, 대밭)'에서 보듯이 'w'로 변화하였다. 또한 16세기 초반까지 중부 방언에 존재하였던 '드 [z]'는 '마은(마은: 월인석보 2:41, 마흔), ㄹ음(ㄹ슴: 범화경언해 2:89, 감, 料)'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에서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탈락하였다.

한편 중세국어 시기에 '드'를 가졌던 대부분의 단어는 'ㄹ세(궁애: 두시언해 10:33, 가위)'에서 보듯이 제주 방언에서 '시'를 가진 형태로 대응한다. 따라서 중세국어의 '드'와 관련하여 제주 방언은 '시'로의 대응형과 탈락형을 동시에 보여주는 방언이라 할 수 있다.⁴⁾ '시' 대응형과 탈락형이 공존하면서

-과 완료의 선어말어미 '-앗/엇-'은 '으'계 어미 앞에서 각각 '-암시/엄시-'와 '-아시/어시-'로 나타난다. '-암시/엄시-'와 '-아시/어시-'는 기원적으로, '-암/엄-'과 '-아/어-'에 '시-(有)'가 통합된 것이다. 이것이 문법화 과정에서 말음 '이'의 탈락을 겪어 '-암시/엄시-'과 '-앗/엇-'으로 재구조화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제주 방언에서 자음 어미나 모음 어미 앞에서는 '-암시/엄시-'과 '-앗/엇-'이, '으'계 어미 앞에서는 '-암시/엄시-'와 '-아시/어시-'가 결합되는 것이다. 물론 '시' 아래 '으→이'의 변화를 필수적으로 보이는 노년층 방언화자는 '으'계 어미 앞에서도 '-암시/엄시-'과 '-앗/엇-'이 결합된다고 할 수 있다.

4) 제주 방언의 상대존대 선어말어미 '-쑤-'와 '-(으)우-'는 '시' 대응형과 탈락형이 이형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예이다. 이 선어말어미는 중세국어의 겸

제주방언의 음운론

의미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발견된다.

스이(스시: 월인천강지곡 177, 사이), 스시(근처)

3.2.2 다른 방언의 어두(語頭)에 경음을 가진 형태가 제주 방언에서 격음을 가진 형태로 대응하기도 한다. '탈(빨기: 훈몽자회 상:6, 딸기), 츠-(ㅈ:- 능엄경언해 9:53, 짜다)' 등이 바로 그러한 예들인데 이는, 다른 방언과 달리 제주 방언에서 중세국어의 어두 자음군이 격음으로 변화한 데에 기인한다.

3.2.3 현대 제주 방언은 대체로 단어의 첫 음절에 한하여 중세국어의 '으'에 대응하는 모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 방언에서 '으'를 확실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노년층 방언화자들의 경우이며 젊은층 방언화자들의 경우에는 중부 방언의 변화 방향('으>아')과는 달리 모든 환경의 '으'가 '오'로 합류하고 있다(물론 표준어의 영향으로 이를 '아'로 발음하기도 한다).

제주 방언에서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닌 위치의 '으'는 거의 모두 '오'로 합류한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까지 '으'를 유지하고 있는 예가 발견된다.

늑물~늑멀(나물), 아들~아덜(아들), 오늘~오널(오늘)

한자어를 제외할 때 단어의 첫 음절이 아닌 위치에서 '으'가 유지되는 예는 '르' 앞에 '으'가 나타나는 경우이며 이들은 모두 '어'를 가진 형태와 공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3.2.4 단어의 첫 음절에 실현된 중세국어의 이중모음 '이'는, '애'로 합류한 중부 방언과 달리 제주 방언에서는 '에'로 합류하였다.

깡(깡: 훈몽자회 중:10, 羹), 맵-(뭍:- 두시언해 25:45, 맵다), 해(해: 월인석보 1:9, 해)

양의 선어말어미 '-습/습-'과 관련을 갖는데 '-쑤-'는 '습[sɛβ] > sɛw > so > su'의 변화 이후 경음화를, '-(으)우-'는 '습[zɛβ] > zɛw > zo > o > u'의 변화를 겪은 것이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제주 방언에서, 중부 방언의 '애'를 가진 많은 단어가 '에'를 가진 형태로 대응하게 되는바 이것이 제주 방언에서 '에'와 '애'의 변별을 사라지게 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된 것으로 여겨진다. 즉 '이>에'의 합류로 '애'를 가진 단어의 수가 극히 적어지게 되고 이것이 '에'와 '애'의 음성 간극을 좁히는 계기가 됨으로써 저모음 '애'가 중모음 '에'로 바뀌는 모음 상승화를 전반적으로 확산시켰다는 것이다. '애>에'의 모음 상승화가 체계상의 균형(<표2> 참조)을 유지하기 위하여 '으>오'의 모음 상승화를 유발하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3.3 형태 변화

3.3.1 제주 방언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은 '꼬치(고추), 고등에(고등어), 배(밭줄), 감쥐(감주), 뉘(노)' 등에서처럼, 한자어 및 기원적으로 종성을 가졌던 것을 제외하면 대체로 전설모음('이, 에, 애, 위, 웨')을 말음으로 갖는다. 이는 이전 시기에 광범위하게 일어났던 어간말 접사 '-이'의 첨가와 관련된다.

3.3.2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은 '낫(晝), 앞(前)' 등 극히 일부의 예를 제외하면 7개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말음으로 갖는다(자음군 말음 체언 어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용언 어간의 경우에는 10개의 자음('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ㅎ')과 3개의 자음군('ㄹ, ㄷ, ㅂ')을 말음으로 가질 수 있다(진행의 선어말어미 '-암ㅅ/엄ㅅ-'은 자음군 'ㅃ'를 말음으로 갖는 어미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체언 어간은 '꺾(젓), 옷(옷), 꺾(끝), 꺾(짚), 득(닭), 꺾(값)' 등에서 보듯이 어간말 자음의 마찰음화와 평음화 그리고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를, 용언 어간은 '꺾트-~꺾뜨-(갈다), 노뜨-(높다), 나끄-(낫다), 할트-(할다), 일르-(일다)'나 '엇-(없다)' 등에서 보듯이 대체로 어간말 '으' 삽입이나 자음군 단순화에 의한 재구조화를 겪어 단순화하였다.

3.3.3 제주 방언의 'ㄷ'불규칙 용언 어간은 '걸지~걸지(걷지), 걸으난~거

제주방언의 음운론

난(걸으니까), 걸언(걸어서)'에서처럼 'ㄹ'정칙 용언 어간과 항상 쌍형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언과 차이가 있다. 이 방언에서 'ㅂ'불규칙 용언 어간은 나타나나 'ㅅ'불규칙 용언 어간은 나타나지 않는다.

3.3.4 제주 방언에는 'ㅇ'을 덧붙인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이는 'ㅇ'이 포함되어 있는 접사를 많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비롯한다. 기원적으로 '강이~갱이(계), 생이(새), 주냉이~지냉이(지네), 징이(쥐)'는 '-ㅇ이'와, '마농(마늘), 바농(바늘)'은 '-옹'과, '파랑ㅎ-(파랑다), 노랑ㅎ-(노랑다), 빨정ㅎ-(빨정다), 꺼멍ㅎ-(꺼멍다), 경ㅎ-(그렇다, 그러다), 영ㅎ-(이렇다, 이려다), 정ㅎ-(저렇다, 저러다)'나 '아방(아버지), 어멍(어머니)' 등은 '-양/영'과 관련되어 있다('아방, 어멍'은 특수한 계층을 제외하고는 호칭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감이영 배영 사과(감과 배와 사과)'나 '감광 배광 사과(감이랑 배랑 사과)'에서처럼 체언과 체언을 연결해 주는 공동격조사 '-(이)영'과 '-광'도 역사적으로 볼 때 '-이여'와 '-과'에 'ㅇ'이 첨가된 것이다.

3.3.5 '오-/울-(오다)'와 '셀-(새다), 아이설-(아이 서다, 姪), 지봉일-(지봉이다, 蓋)' 등은 역사적으로 접사 '-(으)ㄹ'의 첨가와 관련된다.

IV. 맺음말

이상에서 제주 방언의 공시적·통시적 음운론을, 주로 다른 방언과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주로 음운론에 한정된 것이지만 이들로부터, 중앙에서 벗어난 외곽 지역으로서 제주 방언이 가지는 방언사적 특징을 일단 확인해 본 셈이다.

제주 방언은 지금, 다른 방언(주로 중부 방언)의 보급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이는 제주 방언과 다른 방언의 접촉 과정에서 어떤 방언 요소들이 살아 남고 어떤 요소들이 살아 남지 못하는지 하는 방언 접촉의 문제를 제기해 준다. 방언 접촉 과정은 사회 계층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므로 이러한 문제의 해결은 지리방언학적 접근은 물론 제주 방언에 대한 사회방

언학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좀더 정밀한 음성적 관찰을 요구하는 실험음성학적인 연구도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은 물론이다.

<참 고 문 헌>

- 姜根保(1972), 濟州島方言「있다」活用考, 논문집(제주대) 4.
- 姜榮峯(1983), 濟州島方言의 喉音, 탐라문화(제주대) 2.
- 강정희(1988), 제주방언연구, 한남대 출판부.
- 고동호(1995), 국어 마찰음의 통시적 연구 - 제주도 방언 자료를 중심으로, 박사논문(서울대 언어학과).
- 金光雄(1988), 濟州島 地域語의 音韻論的 研究, 박사논문(세종대).
- 金韓坤(1980), 濟州方言 母音體系의 音響分析, 延岩玄平孝박사회갑기념논총, 형설출판사.
- 金洪植(1976), 語幹末母音脫落에 대하여, 논문집(제주대) 8.
- _____ (1977), 用言의 末音母音에 대하여 - 特히 濟州島方言과 關聯해서, 논문집(제주대) 9.
- 朴用厚(1960), 제주방언연구, 동원사.
- 石宙明(1947), 濟州島方言集, 서울신문사.
- 송상조(1982), 'ㅎ'介入에 관한 考察, 석사논문(제주대 교육대학원).
- _____ (1991), 제주도 방언의 접미 과생어 연구, 박사논문(동아대).
- 오승훈(1993), 제주도 지역어의 구개음화 연구, 석사논문(제주대).
- 李基文(1977), 濟州島 方言의 '으'에 관련된 몇 問題, 李崇寧선생고회기념 국어 국문학논총, 탑출판사.
- 李崇寧(1957), 濟州島方言의 形態論的 研究, 동방학지 3(1978; 탑출판사).
- 鄭承喆(1988), 濟州島方言의 母音體系와 그에 관련된 音韻現象, 국어연구(서울대) 84.
- _____ (1991), 音素連鎖와 非音韻論的 境界 - 濟州島方言을 중심으로, 金完鎮 先生 회갑기념논총 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민음사, 李秉

제주방언의 음운론

- 根·宋喆儀 編(1998), 音韻 1, pp.107-121에 재수록.
- _____ (1994), 濟州島 方言의 通時音韻論, 박사논문(서울대, 1995: 대학사).
- _____ (1995), 濟州島 方言의 派生接尾辭 - 몇 개의 재구형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성균관대) 30.
- _____ (1996), 제주도 방언 'ㅎ'말음 용언 어간의 通時論, 李基文교수 정년퇴임 기념논총, 신구문화사.
- _____ (1997), 濟州方言의 特徵, 한국어문(한국정신문화연구원) 4.
- _____ (1997), 濟州本 〈訓蒙字會〉에 대한 書誌學的 考察, 인하여문연구 3.
- _____ (1997), 제주도 방언 어미의 형태음소론, 애산학보 20, 李秉根·郭忠求 編(1998), 方言, pp.313-349에 재수록.
- _____ (1998), 제주방언, 문법연구와 자료, 태학사.
- _____ (1998), 제주 방언의 특징에 대하여, 새국어생활 1998·8권4호·겨울, 국립국어연구원.
- _____ (1999), 제주방언의 音調와 音調群, 진단학보 88.
- 濟州方言研究會 編(1995), 濟州語辭典, 제주도.
- 현우종(1986), 제주도방언 'ㄷ' 음가의 음성학적 연구, 석사논문(건국대).
- _____ (1987), 제주도 방언의 '으'음가 고찰, 건국어문학 11·12.
- 玄平孝(1962), 濟州島方言研究 資料篇, 정연사(1985: 대학사).
- _____ (1985), 濟州島方言研究 論攷篇, 이우출판사.
- 洪宗林(1993), 濟州方言의 樣態와 相, 한신문화사.
- 小倉進平(1944), 朝鮮語方言의 研究, 동경, 암파서점(1973: 아세아문화사).
- 河野六郎(1945), 朝鮮方言學試攷 - '缺'語考, 경성: 동도서적(1979: 河野六郎著作集, 평범사).